

날짜: 5786 년, 8 월 7 일 (2025 년 10 월 29 일)

토라 문: 나아가라

주제: 악인이 선행에 대해 받는 보상

창세기 14:13 에 기록되어 있듯이: “한 도망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렸다. 그는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근처에 살고 있었으며,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아넬의 형제였으며, 이들이 아브람의 동맹자였다.”

레쉬 라키쉬는 이 “도망자”가 바로 바산 왕 옥 (민 21:33)이라고 합니다. 그가 “옥(עֹץ)”이라 불린 이유는, 그가 아브라함이 ‘과자(עוגות, 우곳)’—즉 무교병 (마쭈트)을 준비하는 미츠바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미드라쉬는, 이 도망자가 롯이 사로잡힌 사실을 알리기 위해 출발했고, 유월절 전날 밤 아브라함의 집에 도착했다고 설명합니다. 집에 들어서자 그는—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던—아브라함이 저녁을 위해 무교병을 굽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무교병은 출애굽기 12:39 에서도 “우곳(עוגות)”이라 불리므로, 사람들은 이 도망자를 줄여 “옥(עֹץ)”이라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옥이 아브라함에게 롯이 포로가 되었다고 알린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열정적인 사람이다. 그에게 ‘네 조카가 사로잡혔다’고 말하면 그는 조카를 구하러 전쟁에 나갈 것이고, 그 전투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나는 그의 아내 사라이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미드라쉬는 옥의 행동과 동기에 집중하면서도 훨씬 더 깊은 주제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적 보상과 징벌이라는 신학적 핵심 문제를 다룬다는 점입니다. 엘로힘이 인간의 행위에 따라 보응하신다는 개념은 신앙의 근간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보상의 무대는 이 세상이 아니라 내세 (올람 하바, 장차 올 세상)입니다. 보상이 물질적 형태로 주어지지 않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쉬나 아보트 4:17 은 천상의 경험의 깊이를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세에서의 한 순간의 기쁨은 이 세상의 온갖 쾌락을 모두 합친 것보다 크다.” 물질적 보상은 미츠바의 진정한 가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반적인 원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라샤 (악인)의 보상 문제입니다. 아무리 사악한 자라도 평생 동안 몇 가지 선한 행위를 하게 마련이며, 그에 대해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라샤는 이 세상에서 그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토라는 신명기 7:10 에서 “그의 원수에게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즉시 보응하신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라샤는 세상에서 자신의 공로에 대한 보상을 소진하고, 내세에서 받을 몫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체계가 불공평해 보일 수 있으나, 우리는 엘로힘이 완전한 정의의 재판장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의 모든 길은 공의로우며... 불의가 없으시다”(신명기 32:4). 그렇다면 왜 악인들에게는 다른 방식이 적용되는가요? 그들은 큰 악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엘로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엘로힘은 “어떤 사람에게든 그에 합당한 보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어떤 미츠바도—아무리 작더라도—간과되거나 보상받지 못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악한 자라도 그가 행한 미츠보트에 대해서는 정확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보상이 어떻게 라샤에게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는가요? 그의 선한 행위가 아무리 작더라도,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보상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는 손해를 보는 것인가?

****비르카트 야아코브(Birkas Yaakov)****는 이 체계가 엘로힘의 완전한 정의와 일치함을 분명히 설명합니다. 라샤는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두 가지 주요 방식으로 엘로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육체를 통해서 혹은 영혼을 통해서입니다. 행위의 성격은 주로 행위자의 의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욕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의 선행은 전적으로 육체적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을 돕는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행동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를 차지하려는 욕망으로 행동했습니다. 행위와 동기 모두에서 육체적 차원에만 머문 미츠바를 수행했기에, 그에 대한 보상도 물질적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이 세상에서 장수하는 복을 받았으며, 이는 그의 행위의 성격에 적합한 보상이었습니다.

반면, 의인들은 네페시 (영혼)로 엘로힘을 섬깁니다. 그들은 물질적 이득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창조주를 기쁘시게 하려는 순수한 동기로 행동합니다. 그들의 동기는 순전하고 영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그에 걸맞은 보상이 주어진다—곧 영혼의 세계에서 신적 임재의 빛 가운데 거하는 기쁨입니다.

샬롬